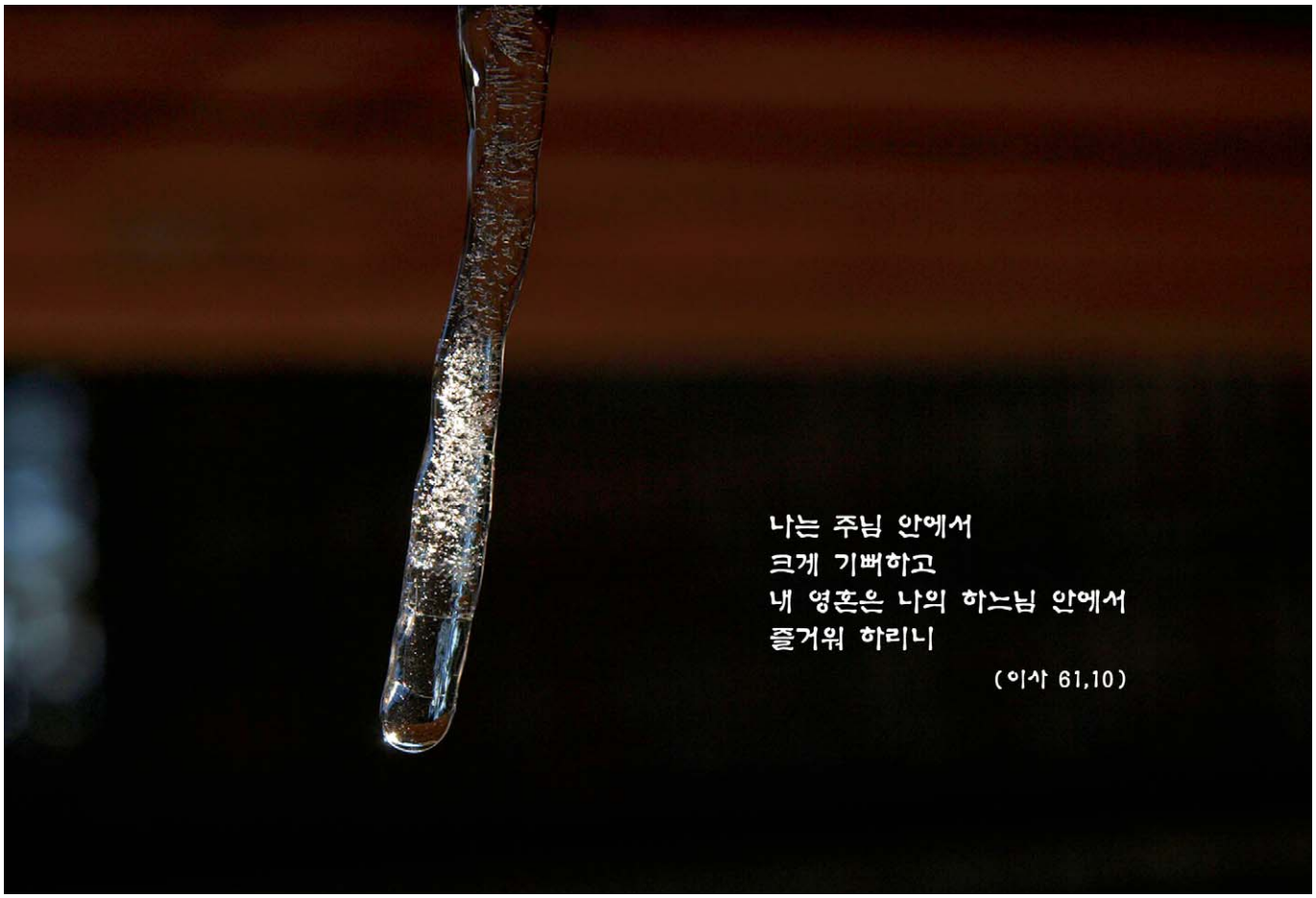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서울주보

2008년 12월14일(나해)
- 제1659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www.catholic.or.kr



입당송 필리 4,4.5 참조

제1독서 이사 61,1-2ㄱ.10-11

화답송 루카 1,46-48.49-50.53-54(◎ 이사 61,10ㄱ)

⊙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음이로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도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주님께서는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도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도다. ⊙

제2독서 1테살 5,16-24

복음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도다. ⊙

복음 요한 1,6-8.19-28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사진 묵상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게 해 줄 주님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내 인생이 얼음처럼 차고 굳었다 해도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생명의 말씀

천명(天命)과 사명(使命)

박성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다 이루어졌다!"(요한 19, 30).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 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묻고 실천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당신의 온 존재를 아버지의 뜻(天命 천명)에 맞추어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길이 그분의 사명(使命)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완수하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책임은 막중했습니다(任重而道遠). 때로는 배가 고팠고 때로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박해는 끝없이 따라다녔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한 마디로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에 동참하는 목마른 길, 그것이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사는 길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목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마르다!"(요한 19,30). 그러나 그 목마름은 이제 당신 사명의 완성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곧 그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일로만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때 천명(天命)은 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복음은 빛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 하늘을 증언하고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사명을 다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늘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요한 1,7).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천명을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통하여 그는 마침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스스럼없이 밝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물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천명을 물어 사명을 살아갑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 하느님,
천명으로 우리들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올바로 살아 바른길 걷게 하소서!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간장종지

제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더는 없으신가요...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면
무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도 제게 귀 기울여주셨는데

구상렬 하상바오로 | 만화가

말씀의 이삭

가장 행복했던 여행

김현 요셉 | 방송인 · 여행 연출가

우리 부부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외에 함께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부 배낭여행가 제1호' 가 그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여행 경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 아내와 둘이서 배낭을 메고 다녀왔고, 저마다 독특한 체험과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질로 본다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했던 가족여행에 비할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몇 년 전 여름, 뜻밖에 걸려온 아들 신부님의 전화 내용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비노입니다. 이번에 여름휴가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동생과 전화로 의논했는데, 함께 가족여행 가실 수 있으세요?"

말 그대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일 년에 불과 몇 차례밖에 못 만나는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와 손녀딸, 아내와 나, 온 가족이 며칠씩이나 같이 지낼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보낸 제주도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둘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연년생으로 남다른 우애 속에서 커온 형제는 연신 장난을 치면서 웃음이 떠날 새가 없었습니다. 낳아 기른 부모도 '신부님' 이라고 부르는 큰아들을, 작은아들은 넉살좋게 꼬박꼬박 '형님' 도 아닌 '형' 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형제는 생선가시를 발라 어머니, 아버지 앞에 놓아주는가 하면, 잠자리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극진한 정성을 받으면서, 이제는 두 아들이 우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아들에게 기대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두 아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들이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노래 부르며 다녔던 여행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고요.

여름휴가 때마다 고물이 다 된 소형차를 타고 경주, 부여 등 신라나 백제 문화권 또는 '솔뫼' 같은 천주교 성지를 일주일가량 답사하곤 했는데, 여섯 명이 털털거리는 자동차에 끼어 앉아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를 몽땅 들춰 부르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곤 했었지요.

그 소박한 여행들이 두 아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니, 내가 아비 역할을 그럭저럭 괜찮게 했구나 싶어 흐뭇했습니다. 더불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행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39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태양열 교황청 지붕

지난해 6월 로마 교황청은 교황님께서 겨울철 대접견 행사에 쓰이는 건물인 '바오로 6세 홀' (1969년 건립)을 태양열 전지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이 건물의 지붕을 같은 색깔의 2,700개 태양 전지판으로 교체하였고, 지난달부터 강당의 조명과 냉 · 난방 전력을 태양열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지난해 4월 바티칸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 세계 10억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환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청은 앞으로 바티칸 내 공사가 가능한 건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청소년 행사에는 이미 재활용배낭과 썩는 플라스틱 용기 등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발(發) '초록교회 만들기' 소식! 우리 교회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제25회 자선주일 담화문(요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가 1984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기간의 세 번째 주일을 자선 주일로 제정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사회적 특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지구촌 전체로 확산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의 파장이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빈곤 계층의 삶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의 모습은 진정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누고 돕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요청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나누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나의 이웃입니다.

사랑의 성사라 일컫는 성체성사는 사랑의 사회적인 차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빵이 하나이므로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모든 사람과 이루는 일치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목적 활동의 목표 역시 사랑의 실천이고 확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가 물질적 요구를 포함한 인간의 요구와 아픔에 부단하게 부응하려는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 14 참조)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 실천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 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필수적인 요인' 이라는 말씀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사랑 실천 활동의 근거를 제시해줍니다(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참조).

교회의 사랑 실천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이웃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아내어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 만으로'(마태 4,4)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 실천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물질의 결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고독과 두려움에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며,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느끼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사랑의 길을 닦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 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위원장 **안명옥** 주교

소식

오늘(12월14일)은 '자선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배려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 신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 헌금을 합니다. 이렇듯 자선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행위이며, 아기 예수님을 위한 기다림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12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사목교서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2월15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2월16일(화)	청량리성당	명일동성당
2월17일(수)	중곡동성당	
2월18일(목)	대방동성당	
2월19일(금)	목동성당	명동성당(가톨릭회관 3층)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2월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1953년, 용산

'서울주보'와 '그대 지금 어디에' 합본 보급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2008년도 '서울주보'와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 합본을 보급합니다.

· 서울주보: 1만 원, 그대지금어디에: 3천 원
· 문의: 727-2032, 3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평화화랑: 신성현 조각전

평화화랑은 '신성현(안드레아, 춘천교구 양양성당) 조각전'을 12월17일(수)~23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왕 다윗' 간행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다윗의 일대기를 담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왕 다윗'」을 간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과정, 임금이 된 후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이야기와 곡절 많은 가족사 등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성경을 토대로 일목요연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보여 줍니다. 훌륭한 인격자이자 나약한 죄인인 다윗을 통해 신앙인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가톨릭출판사, 296쪽, 1만5천 원).

· 인터넷 구입: www.catholicbook.kr
· 문의: 360-9123, 9130 가톨릭출판사

대림시기의 전례적 의미

대림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구세주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둘째는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시기의 전례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시기를 희망의 시기로 이끌어 갑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선택한 독서는 주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을 통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제1주일)과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요한 세례자의 설교(제2주일), 메시아 시대의 현존에서 오는 기쁨(제3주일), 그리고 강생의 의미와 마리아의 역할(제4주일)을 들려줍니다.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전 · 의경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대상: 전 · 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세례 · 견진 받은 55세 이하 교우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12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때, 곳: 12월16일(화) 오전 11시,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집전 및 강론: 유경촌 신부(통합사목연구소)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알림

모임

씨튼피정의 집 성경통독피정 (문의: 744-9825)
· 때: 12월19일(금)-21일(일) / 회비: 7만5천원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
· 미사: 박성구 신부 / 치유: 이명환, 이석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016-309-0048

예수회 서울피정
· 주제: 내 인생의 빛과 어둠 그리고 희망(개인 컵 지참)
· 때, 곳: 12월17일(수) 13시30분-16시30분, 서강대 이냐시오성당(강사: 김영택 신부) / 718-3896, 7 후원회

어린이 성령피정
· 대상: 초등 4-6학년 여아 / 문의: 055)351-2285, 6
· 때: 12월27일(토) 오후2시-29일(월) 오전8시
· 곳: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본원 / 회비: 4만원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12월21일(일) 14시-17시, 가톨릭출판사 신관 8층(전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 때: 12월20일(토) 오후 6시45분,
· 곳: 작은 형제회 수도원 성당(정동) / 744-0840 (www.taizelove.or.kr) 청소년의 햇살

예수 성탄신비 묵상피정
· 때, 곳: 12월23일(화) 16시-25일(목) 14시, 분도 명상의 집(부산) / 051)582-4573, 010-6650-4574
· 회비: 9만원(성경 또는 매일미사책 준비)

청년을 위한 찬양의 광장
·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동성고등학교 소성당 3층
· 지도: 전제덕 신부(www.holyspirit.seoul.kr) / 문의: 866-6345, 010-7378-2878 청년성령쇄신봉사회(루하)

살레시오 관상기도와 미사, 영성 강좌, 안수
· 지도: 김보록 신부(대상: 누구나 환영)
·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까리따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미터 우측) / 문의: 848-9932, 011-711-9928

명동성당 월요 치유 대피정
·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교우(회비 없음)
· 때, 곳: 매주(월) 오후1시30분-5시40분, 명동성당 내 별관(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 문의: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은혜로운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1주	치유기도,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거동
5주	가정미사	주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문의: 773-1455)

제주 피정	매일미사, 삼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
	말씀, 총고해성사, 자연과 함께, 성지순례
	1월18일-20일, 2월19일-21일, 2월24일-26일, 2월28일-3월2일
삼위일체회 피정	때, 곳: 12월15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조성태 신부(살레시오회)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 대상: 누구나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회비 없음)
월요 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당(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성모송 2000번	때, 곳: 매월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당 (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젊은이 성체조배(성모 영보 수녀회)
· 때, 곳: 매주(목) 20시-22시, 과천 본원 성당
· 문의: 011-9920-9423(www.smyoungbo.or.kr)

삼성산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곳: 12월15일·22일(월)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모집

사랑의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 대상: 공동체 삶을 원하는 분, 20-40대의 독신 남녀로 상주 가능한 분
· 문의: 031)771-6260 양평 옥천 피정의 집

(사) 서울시니어아카데미 회계직원 모집
· 대상: 대졸 이상의 40세 미만의 교우(회계학 관련전공 우대) / 727-2368(www.isenior.kr)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12월22일까지)

2009학년도 (안동)가톨릭 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정시모집 1차**: 12월18일(목)- 1월6일(화)까지 접수
· 모집학과 안내는 홈페이지(www.csj.ac.kr) 참조
· 문의: 054)851-3021~2, 3009(팩스) 대외협력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회 지원자 모집
· 대상: 55세 이하로 영, 육 간에 건강하며 성모님의 삶을 따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모든 교우 / 323-0448, 010-9620-4820
· 때, 곳: 12월20일(토) 10시-17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옆)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 내용: 신구약 성경 및 신학 일반(그리스도론, 전례학 등 26과목) / 우편 접수 가능
·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745-8339(직), 747-8501~5(교)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 원서 교부 및 접수: 11월10일(월)-2월13일(금)

교육

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교실
· 때: 월-금요일반(주1회, 2시간)
· 곳: 가톨릭회관 512호 / 문의: 778-7543

7지구 노원성당 혼인 강좌
· 때, 곳: 12월21일(일) 오후3시-6시, 노원성당 나눔자리(전철 7호선 마들역 5번 출구)
· 회비: 2인 2만원(교재·간식) / 문의: 933-9981

세상속의 영성수련 수강생 모집
· 때, 곳: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 서강대 이냐시오관 성당 / 705-8163 한국 CLC(회비: 10만원)

1월8일	예수는 누구인가(강생을 중심으로)
1월15일	믿는다는 것
1월22일	기도란 무엇인가
1월29일, 2월5·12일	묵상 1,2 / 관상(성서가 나를 읽기)
2월19일	원리와 기초(인간존재의 목적)
2월26일	성찰(나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
3월5일, 12일	식별(세상이라는 성서)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 (http://cacc.or.kr)
· 무료 상담 및 문의: 521-2364, 2577(내방 10시-17시)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 끊고 싶은 분을 위한 주간 및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
가족 프로그램	**가족치료 모임 운영**: 매주(목) 오후2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7시30분

로마서 세미나(문의: 455-8836, 017-231-1999)
· 때: 1월7일-3월25일 매주(수) 19시-21시30분
· 곳: 작은 예수회(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100미터 전방, 농협 지하) / 회비: 3만원(교재비 포함)

제16차 어린이 성령학교
· 대상: 현재 초등 3-6학년(지도: 전제덕 신부)
· 때: 1월19일(월) 10시-20일(화) 15시(1박2일)
· 곳: 성령쇄신 봉사회관 3층(신림동,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에서 5528·6512·504·5535번 타고 신림8동사무소 하차) / 866-6345
· 회비: 4만 원(교재·간식·점심 포함)
· 준비물: 필기도구, 묵주, 미사책, 개인물통
· 예약 접수: 국민은행 404601-01-177300 김필남
· 문의: 010-8332-7334, 010-6254-9549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문의: 834-6411,2)

보라매 Kids English 원아모집	교육기간: 2009년3월-2010년 2월(월-금) 9시30분-15시(www.boramyc.or.kr) 교육과목: 영어교육(원어민/한국인), 유아교육, 연계수업 / 문의: 834-7233, 4
보라매 겨울 방학프로그램	대상: 초등학교 3-6학년(종이비행기만들기, 사진과학놀이, 열기구날리기 등) 때: 1월9일(금)-10일(토) 13시30분-16시30분 곳: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보라매공원 회비: 1인 1만원(2일간) / 문의: 834-7233,4

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12월19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성가정 입양원 후원회 미사
· 때: 12월21일(일) 오전11시
· 곳: 성가정 입양원 성당 / 문의: 764-4741~3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
· 때, 곳: 12월15일(월) 오후2시, 반포4동성당
· 문의: 3673-2525 한국 외방 선교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미사
· 때, 곳: 12월15일(월) 오후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신자(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외 사제단) / 문의: 2299-2296, 011-202-5145
· 때, 곳: 12월18일(목) 15시, 가톨릭회관 3층

몸과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미사
· 지향: 돌아가신 부모·형제·친척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 후손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성수·도유예절) / 집전: 남영희 신부
· 때, 곳: 12월18일(목) 오후2시-4시, 새남터성지
· 문의: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나자렛 성가회 후원회원과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 문의: 391-3086, 010-9040-1857(종로구 평창동)

기도회	매주(금) 14시-16시	말씀과 찬양 치유기도
미사	12월19일(금) 13시30분-16시	후원회원을 위한 감사 미사

안내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 공동체)
· 여성 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행복을 만드는 집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매주(월~금) 10시-18시 / 상담: 745-1366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12. 21.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나자렛 예수 수녀회	12. 21. 14시	경남 창녕 본원	016-500-4903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12. 21. 14시	한남동 수녀원	010-4529-3429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2. 21	안산 수련소	010-2882-6227
마리아의 딸 수도회(마리아니스트)	12. 21. 14시-16시	목동 본원	011-686-7134
마리아 수도회	12. 20. 14시	문의요망	010-2406-8547
삼성산 성령 수녀회	12. 21. 14시-17시	신림동 본원	874-6347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12. 21. 14시-17시	돈암동 본원	010-7101-930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 21. 14시	군포 수녀원(군포성당 옆)	010-6625-0927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12. 21. 14시	장위동 수녀원	010-2000-4131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12. 21. 14시	인천 강화 갑곶 순교성지 수녀원	032)766-1685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12. 21. 10시	스승예수제자수녀회본원	016-9876-0418
예수 마리아 성심 전교 수녀회	12. 21. 14시	수녀회 본원	010-3227-9446
예수수도회	12. 21.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위로의 성모 수녀회	12. 21. 14시	성북동 본원	010-4805-4224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12. 21. 14시	계산 서원(대구)	054)434-8660
한국 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	12. 21. 14시	성북동 분원	011-9113-4997

www.pbc.co.kr PBC 평화방송·평화신문 TV 33 · SKY 413, FM 105.3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PBC 평화방송 TV 대림 개편

평화방송 TV는 새 전례력이 시작되는 대림 첫 주부터 개편을 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 **정치우의 TV 복음화학교**: 정치우 회장(새천년복음화학교 설립자)이 들려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 **조학균 신부의 전례 이야기**: 알기 쉽게 설명하는 미사와 전례의 의미
- **차동엽 신부의 통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 로 풀어보는 하느님께 통하는 기도 방법 /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웃돕기 프로그램
- **토스카나의 성 미술**: 토스카나 지방의 아름다운 교회 미술 작품
- **교황 일반알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전하는 교회의 가르침
- **북 콘서트**: 유명 작가와 음악가들이 꾸미는 이색 콘서트
- **드라마 신부님은 해결사**: 탐정 마태오 신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평화방송 TV 편성표는 홈페이지(www.pbc.co.kr/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2270-2615

2009년 평화방송·평화신문 특별한 성지순례

1. 로마 6박7일 단박 성지순례
'바오로 해' 교황청 지정 전대사 순례성당
1월16일, 1월30일 출발(6박7일)

2. 이탈리아 6박7일 단박 성지순례
1월9일, 1월23일 출발(6박7일)

3.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기념 순례
터키-그리스 / 1월28일 출발(12박13일)

4. 겨울방학가족특선 '성지 및 세계문화유산 기행'
독일-체코-오스트리아 / 1월14일 출발(8박9일)

· 문의: 2266-1591~2(www.pbc.co.kr) 평화방송여행사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가 지난 10월 가을 개편으로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의 방송시간을 늘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오전 7시10분~8시)에서는 이슈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시간(1~2건)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뉴스메이커들과의 인터뷰 청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 주간의 경제소식을 정리하는 '생생경제 - 인하대 한재준 교수 연결' , 화요일에는 지구촌 소식을 살펴보는 '이 시각 세계는 - 연합뉴스 문관현 차장 연결' , 수요일에는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한귀영 실장 연결' , 목요일에는 청취자들이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공감 인터뷰' , 금요일에는 평화방송 지방국을 연결해 지방 현안을 살펴보는 '전국시대, 우리는' , 토요일에는 국민들이 주목할 법안을 소개하는 '주목! 이 법안' 과 문화계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는 '문화라운지' 가 마련돼 있습니다.

2부(오전 8시~9시)에서는 지금까지처럼 날카로운 분석으로 뉴스의 인물을 만나는 집중 인터뷰(2~3건)에 이어 최동철 스포츠 앵커가 전하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해설' 이 월~금요일 주 5일간 방송됩니다. 토요일에는 화제의 책을 만나는 '화제의 신간 저자와의 만남' 또는 뉴스의 중심인물과의 와이드 인터뷰 시간이 마련됩니다.

· 제작: 오동선 PD, 이상도 시사팀장 / 진행: 이석우 보도국장
· 방송일시: (월~토) 오전 7시10분~9시

라야톤 내한공연

· 입장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599-5743(www.vincero.co.kr)

핀란드 최고의 보컬그룹 '라야톤' 이 12월21일(일) 오후 1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지난 여름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들이 함께한 '어메이징 보이스 2008' 에서 완벽한 보컬 하모니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라야톤이 각 개인의 탁월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

뮤지컬 '카페인'

· 입장권: R석 4만5천 원, S석 3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42-9005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4시, 18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의 만남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카페인' 이 2월28일(토)까지 대학로 라이브극장에서 공연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 과 '결혼' 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창의적이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2인극으로 구성되었으며 6인조 라이브 밴드와 함께 환상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